“후진양성 등 사진예술 발전 파수꾼 되겠다”

●최영태 작가 ‘사진예술부문 대한민국 최고 명인’ 등극

사진 속 ‘미(美)’ 메시지 표출 주력해 온 실력파

“사진·행복한 세상 열어가는 메신저 역할 할 것”

예향의 도시 빛고을 광주에서 대한민국 사진예술 분야 최고의 명인이 배출됐다.

3일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종로구 혜화동 한예극장에서 열린 ‘제13회 한국예술문화명인 인증식’에서 사진가 최영태(58·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사진)씨가 사진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풍경사진’ 부문 명인 인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받았다.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조강훈)가 주최하고 한국예술문화명인진흥회(이사장 황의철)가 주관한 한국예술문화명인 인증은 분야별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면서 전통과 새로운 예술문화를 유지·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 장인(匠人)을 선정하는 제도다.

소중한 예술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창작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매년 100여개의 다양한 예술 문화 분야에서 공적 추천서를 받아 영예로운 명인을 선정한다.

전통과 현대 예술문화 계승·발전을 선도하는 올해 최고의 명인들은 지난 10개월 동안 폭넓은 작품성과 전문성 등을 평가,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국에서 32명이 선발됐다.

2024 명인 선정으로 예향의 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인 최영태 작가는 광주지역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들며 ‘미(美)’를 승화시키고 있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는 정서적 교감으로 ‘찰나의 풍광’들을 앵글에 담아온 최 작가는 광주대학교 사진학과 대학원 과정을 밟은 정통 사진가다.

현재 동 대학 평생교육원 사진아카데미 지도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또 광주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시민예술대학 사진강좌 강사로 활동하는 등 후진들을 지도·양성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특히 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교육지도자·전국심사 자격증, 사진 관련 다양한 기술 보유로 사진에 관심 있는 중·고 학생들에 도움을 주는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사진예술 창작 선봉자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최 작가는 봉사활동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10년째 노인복지관 등을 찾아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무료 장수사진 촬영을 하고 있고 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의 사진강좌·출사 지도도 12년째 이어오고 있다.

사진이란 매개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최 작가는 2019년에 이어 2024년 광주시장상, 언론인연합회가 주관한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 대상, 대한민국 충효 대상 등 지자체와 기관으로부터 다수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 속에 담긴 메시지를 표출하는데 주력해 온 실력파 최 작가는 제35대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시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본부이사의 중책도 맡고 있다. 개인전과 대한민국사진축전, 단체전 등 다수의 전시회를 가졌다. 광주사진대전·호남미술대전과 5·18민주화운동기념 전국사진대전 초대작가, 전국 단위 수많은 사진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이력과 활동 경력이 화려하다.

최영태 작가는 “대자연의 경외로움을 앵글에 담는것도 중요하지만, 명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후진을 양성하는 등 사진예술 발전의 파수꾼이 되겠다”며 “사진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데 메신저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관심 기울여주신 사진동호인 선·후배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김영근 기자

광주매일신문 제11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졸업여행

제11기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원우회(회장 이형연) 회원 30여명은 지난 1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로 졸업여행을 다녀왔다.

원우들은 새별오름과 환상숲 곶자왈 공원 등 제주 주요 관광지와 힐링 지역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형연 회장은 “아카데미 과정 종강을 앞두고 원우들과 추억을 쌓고 의미있는 시간을 갖고자 여행을 계획했는데 매우 즐겁고 유익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정은솔 기자

전남해바라기센터 개소 5주년…“안전사회 조성 협력”

전남도는 3일 “전남해바라기센터가 개소 5주년을 맞아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 영광예술의전당에서 기념식을 열어 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업을 공유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최유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팀장, 성혜란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 문지웅 영광기독병원장, 김경옥 전남해바라기센터장 등 80여명이 함께해 개소 5주년을 축하했다.

전남해바라기센터는 2019년 11월 영광기독병원으로 이전 개소해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응급치료, 성폭력 증거채취, 진단서 발급과 수사, 진술서작성, 법적 증거 확보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이날 행사는 해바라기센터 전 직원이 함께하는 ‘문을 여시오’ 플래시몹, 지난 5년간의 발자취 영상 감상, 공로상 시상,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해바라기처럼 든든한 동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전남해바라기센터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해바라기센터가 피해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바라기센터의 법률상 명칭은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다. ‘성폭력’이라는 부정적 의미보다는 피해자를 보호해 해바라기꽃처럼 활짝 웃을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의미로 해바라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김재정 기자

광산구 우산LH 1단지 ‘소통·힐링 작은 음악회’ 성료

광주 광산구 우산LH 1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는 “최근 지역 어린이와 주민들을 위해 개최한 ‘소통&힐링 작은 음악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작은 음악회는 LH와 광산구의 지원으로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음악회에 참여한 50여명의 주민들은 다과와 음료를 마시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단지 주민들이 직접 배워 익힌 숟가락 장단과 인기 동화인 아기돼지삼형제 인형극을 감상했다.

이혜련 센터장은 “음악과 공연을 통해 주민과 어린이들이 마음껏 소통하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옥근 기자

전남도·호남향우회, 대구서 영호남 화합 다짐

전남도는 지난 2일 대구 두류공원에서 열린 ‘영호남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 잔치’에서 호남향우와 함께 영호남 화합과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장, 김주찬 대구경북호남향우연합회장, 이상구 호남발전연구원장, 각 지역 호남 향우회장, 향우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영호남 간 지역 장벽을 허물고 세대와 계층을 초월한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처음 마련됐다. ‘고향사랑 365 기부 캠페인’과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모집 약정’ 등 고향사랑 실천 퍼포먼스가 펼쳐져 의미를 더했다.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는 지난 5월 전남도 국립의대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 포럼과 10월 도민의 날 행사 등 전남도 행사에 참여해 국립의대 설립과 고향사랑 실천 등 도정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을 이어가고 있다.

최순모 총연합회장은 “이번 행사는 영호남이 지역적 배경과 문화적 차이를 넘어 더 큰 발전과 화합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호남 향우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고향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호남과 영남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전통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소중한 동반자”라며 “영호남 시·도가 연대·협력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자 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진정한 지방시대를 선도하도록 향우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정 기자

동구자원봉사센터,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 탐방

(사)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는 3일 “전날 제95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북구 누문동에 위치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 탐방 및 환경 정비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너의 맘 속에, 나의 맘 속에’라는 제95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주제에 맞춰 일제 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품었던 독립 정신을 기억, 공유하고 오늘날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광주 정신(민주·인권·평화)의 실현을 염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929년 11월3일 광주지역 중등학교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가 기폭제가 돼 국내는 물론 해외 학교까지 참여한 광주학생독립운동은 독립운동사의 3대 항일 운동 중 하나로 꼽힌다.

조상권 이사장은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자양분이 됐던 우리 지역의 의향(義鄕), 예향(藝鄕) 문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독립·민주화 운동 사적지 탐방과 독서 진흥 캠페인을 앞으로도 활발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순권 센터장은 “지금 부활하는 친일 매국세력과 후퇴하는 민주주의가 학생운동 기념일을 맞아 정상화 되기를 학수고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지난해부터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문구를 되새기며 동구에 있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 광주백범기념관, 4·19민주혁명역사관,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등에서 역사 공부와 봉사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안재영 기자

양광희 구례경찰서장 ‘청소년 사이버 도박 근절’ 챌린지 참여

구례경찰서는 3일 “양광희 서장이 지난 1일 청소년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한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들의 사이버 도박과 2차 범죄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양광희 구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청소년 사이버 도박 등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예방 등 홍보활동에 주력해 도박이 없는 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례=임종길 기자

장성 읍내파출소, 농기계 사고 예방 서한문 배포

장성경찰서 읍내파출소는 “최근 가을 농산물 수확기간 중 중장비, 농기계로 인한 안타까운 교통(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서한문을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서한문에는 장비 대여 시 안전점검 및 교육이수, 작업 중 과속금지, 주변 통제 등 안전수칙 준수, 적절한 휴식으로 과로·졸음운전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성 읍내파출소 관계자는 “담당마을 순찰근무자들이 농민·중장비 운전자, 농기계·중장비 대여업소에 직접 방문해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평온한 장성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광주시, 가을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광주시는 지난 2일 광주FC 경기가 열리는 광주축구전용경기장에서 범시민재난안전추진단과 함께 경기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 함께해요!’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가을 행락철 급증하는 교통사고와 축제·행사, 산행, 체육활동 등 야외 활동하기 좋은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했다.

광주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안전퀴즈 풀이를 통해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시민 스스로 안전 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형 안전캠페인을 진행했다. /박선강 기자

인사

금호타이어

◇승진

▲부사장 이강승 김현호 ▲전무 안용진 김영진 ▲상무 전민성 박은태 전성호 윤태정 최명중 송강종 윤선민 조치훈

◇신규 선임

▲상무 전강우 김옥조

결혼

▲박정숙씨 장남 백종진(남해화학 전기기사)군, 나종국(오룡철물 공구 대표)·양남희씨 장녀 행요(고창식품 산업연구원 연구개발실 연구기획팀 연구원)양=10일(일) 낮 12시 광주 북구 동문대로 287 까사디루체웨딩컨벤션 3층 안젤로홀. (062-710-4000, 010-3610-8703)

▲김원봉·임혜경씨 장남 진호(베스트디지탈 제1연구소 연구원)군, 윤사선(건양건설 대표)·허윤숙씨 차녀 지원(MCM korea 디자이너)양=16일(토) 오후 1시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55(김대중컨벤션센터 맞은편)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로즈홀. 010-5467-4150.

CMYK